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7

끝없이 정진해 '대자유' 얻으라

[원문]

찰나생명무상법(刹那生命無常法)
취산순환유루인(聚山循環有漏因)
금오출몰촉년광(金烏出沒促年光)
옥토승침최로상(玉兔昇沈催老相)
인수정고어소수(忍受井枯魚少水)
영웅상핍서침등(寧容象逼鼠侵藤)
도자취경조수행(緇髮醜境早修行)
근념미타생극락(勤念彌陀生極樂)
-단양 방곡사

[번역]

찰나에 생하고 멸하는 것이 무상의 법이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유루가 원인이다
금 까마귀는 똬다 똬다 연광을 재촉하고
옥토끼는 울었다 잠잠하다 하며 늪을 재촉한다.
우물이 말라 고기가 어찌 참고 있을 것이며
코끼리가 꺾박하고 쥐가 땅굴을 갉아 먹으니
취약한 경계를 일찍 깨달아 수행을 해야 한다
부지런히 아미타불 염불해 극락에 왕생하자

[신해(禪解)]

나는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 지리산 토벌대에 참여해 수많은 죽음을 곁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당시 지리산의 한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빨치산의 습격으로 인해 대원들이 모두 죽고 나는 포로가 됐다. 다행히도 동료 한 명과 함께 빨치산의 근거지인 지리산으로 끌려가다가 도중에 천신만고 끝에 탈출했다. 그 후 시집(麗詩)이 흐르는 죽음의 현장에서 진저리를 치다가 실상사 약수암에서 금오 스님을 만나 출가를 했다.

그 때 만난 금오 스님의 눈빛은 참으로 형형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지리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나는 당시 어떤 나이로서는 견디기 힘든 죽음의 공포에 매일 시달렸다. 그런 나에게 금오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고 죽는 것보다 큰 사건도 없지만 우주의 섭리에서 보면 이 또한 풀잎 위의 이슬처럼 허망한 것, 마땅히 대장부라면 수미산처럼 높은 깨달음을 얻어 생사해탈에 이르러야 한다. 청년이 만약, 번뇌의 망상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으려면 출가를 해야 한다. 절에 들어와 수행할 생각은 없는가?" 스님의 말씀이 귀에 와 닿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대자유라는 말에는 귀가 솔깃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 금오 스님을 찾아갔더니 나를 보시자 팔자 하시는 말씀이 "올 줄 알았다"고 했다. 나는 금오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힘이 들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출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 너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무엇인가 모르게 문중한 것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스님은 말씀을 이어 나갔다.

"맑고 깨끗한 유리창에 서면 만상(萬象)이 모두 깨끗하게 보일 테지만 흐리고 더러운 유리창에 앞에 서면 모든 사물이 더럽게 보일 것이다. 선악미추(善惡美醜)의 기준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오직 모든 것은 마음 하나에서 만들어진다."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었다. 어느새 어지러웠던 모든 망상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남았다.

"스님, 저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부처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 후 나는 탄성 스님께 무명초(無明草)를 꺾었다. 머리카락과 함께 오래 동안 내 발목을 잡았던 모든 망상들도 모조리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후 나는 불가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다.

오늘 내가 출가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다. 요즘 출가를 하는 젊은이들은

스님은 일본 오사카 의대 전문의 과정을 밟다가 군의관에 강제 징집돼 군복무 중 해방돼 출가한 화엄 스님에게서 득도(得度)하셨는데 출가 후 무려 십년 동안 매일 오십 번 씩 법당 마루를 닦는 혹독한 수행을 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은사스님을 이해하지 못해 화도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단양의 방곡사는 총북편만 아니라 전국에 이름 있는 도량으로 바뀌어 놓았다. 스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풀과 꽃들을 좋아해 언제나 직접 넓은 밭에 물을 주고 가꾼다. 스님이 방곡사를 창건한 것은 10년 남짓이지만 전국 제일의 기도도량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주련도 직접 지어 걸었다고 하신다.

‘찰나생명무상법 취산순환유루인.’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은 찰나에 반드시 멸하는 것은 불교의 무상법이다. 하지만 생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유루가 원인이다. 여기에서 무는 쉼(無)자를 뜻하는데 말하자면, 주상보시가 공덕으로 돌아와도 유루(有漏)의 복에 그치지만 무루(無漏)의 복인 무주상보시는 쉼 없이 많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 유루가 원인이 되어 항상 생사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금오출몰촉년광 옥토승침최로상.’

금 까마귀는 하늘의 태양을 뜻하고 옥토끼는 달을 말한다. 즉, 태양과 달이 연광을 재촉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재촉한다는 뜻이다.

‘인수정고어소주 영웅상핍서침등.’

우물의 물이 말라 고기가 살지 못하고, 코끼리가 꺾박하고 쥐가 땅굴을 갉아 먹듯 인간의 생명은 생사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도자취경조수행 근념미타생극락' 해야 한다는 스님의 전언(傳言)이다.

오늘날 인간의 목숨은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깨닫고 출가를 결심했듯이 우리들도 '고기가 물이 마르고 코끼리가 물러오고 쥐가 생명의 땅굴을 갉아 먹고 있다' 이 취약한 경계를 바로 알아, 일찍부터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부르며 수행해 극락왕생을 하자는 깨달음의 경구(警句)이다. 이 속에는 그 어떤 고승의 계송 뜻지않은 깊고 묘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

우리의 삶은 '쥐가 땅굴을 갉아 먹듯이' 남은 생들을 아낌없이 파먹고 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러한 죽음의 한 때를 결코 피하지 못한다. 때문에 어서 자기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7

보이는 것은 다 마음의 그림자

[원문]

我心空寂 本無如是相貌 若取相 即是魔羅 盡落邪道 若知幻從心起 即不用禮 禮者不知 知者不禮 禮被魔攝 恐學人不知故 作是辨 諸佛本性體上 都無如是相貌 切須在意 但有異境界 切不用採括 亦莫生과 怖 又不要疑惑 我心本來清淨 何處有如許相貌 乃至天龍夜叉鬼神帝釋梵王等 亦不用生敬重 亦莫懼 我心本來空寂 一切相貌 皆是妄相 但莫取相.

나의 마음은 공적하며, 본심은 이와 같은 모습인데 만약 상(相)을 취하면 곧 마구니에 붙들리어 사된 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허깨비가 마음에서 일어난 줄 알면 절을 할 필요가 없느니라. 절을 하는 사람은 모르고 하는데, 아는 사람은 절을 하지 않느니라. 절을 하면 마구니에 붙들리는 것이니라. 확언이 알지 못할까 염려돼 이렇게 풀이하노라. 부처님들의 본성 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없으니 반드시 명심할지니라. 기이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절대 붙들려 허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지니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겠느냐. 천인이나 용이나 아차나 귀신이나 제석천이나 범천왕에게라도 공경할 생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의 마음이 본래 공(空)한지라 일체의 모습이 모두 허망하니 상을 취하지 말지니라.

[해설]

‘만약 상(相)을 취하면 곧 마구니에 붙들리어 사된 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우주의 근본실상은 문자나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모양을 떠난 마음자리인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마구니, 즉 사된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것은 도하고는 거리가 멀며,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허깨비가 마음에서 일어난 줄 알면 절을 할 필요가 없느니라.’

달마 스님께서는 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절을 하되 우주의 근본실상, 모양이 없는 자리에 마음을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마음 자리에서 보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주가 그대로 본래 청정한 불성 자리와 똑같은 자리입니다. 마음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고 그대로 하나의 생명으로 돼 있는 실상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일원상(一圓相)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우주의 근본실상 자리에서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된 허깨비와 같은 상태를 마음에 두고 절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러

나 절을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경지에 가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범부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본래 실상자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귀의(歸依)'는 '돌아가 귀'자, '의지할 의'자를 쓰지요. 그런데, 돌아간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돌아가니까? 여러분 본래 마음 자리에 돌아가서 그 자리를 의지한다 그런 얘깁니다. 귀의한다 했을 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부처님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천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락에 아미타불이 계시고, 동방에 약사여래 부처님이 계시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자리는 모양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방편상 이름을 붙여놓는 겁니다. 본래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편리한대로 이름을 붙여놓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름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깁니다.

‘절을 하면 마구니에 붙들리는 것이니라... 부처님들의 본성 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없으니 반드시 명심할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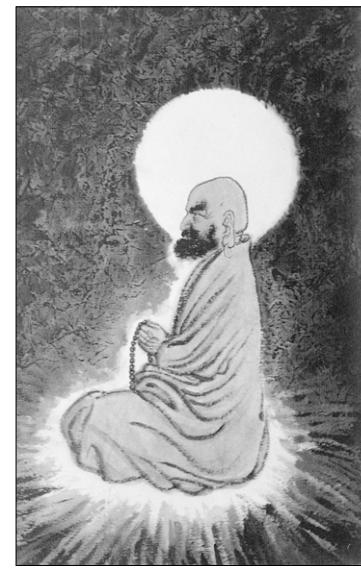
달마 스님께서 수행자들에게 실상자리에서는 어떤 문자나 언어로도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니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했던 분이고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하지 않은 분입니다.

선(禪)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번뇌입니다. 그 가운데 본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쓴다면 도인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도 무애행(無碍行)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는 파계승이요, 은갖 말들을 했거든요. 하지만 원효 스님께서는 본래자리에 마음을 두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기이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절대 붙들려 허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지니라...’

정진 중에 환영이 보이는 경우보이는 것은 다 마음의 그림자라 굳게 믿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상(相)도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상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선원부(盛元窟) 작 달마도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시대는 정확한 체질에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를 알고 먹어야내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어요!
내용에 맞지 않는 음식은 내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나의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넘게 얼굴생김새,목소리,체형,성격을 본후 피부를 만져보면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유전적인병명,현재있고 있는병등을 만나는데로 알수있고 체질한약차로 병을고치는 분을 만나로 오세요.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지는 행운이 열립니다.지금전화주세요? 스님들은 수행에큰변화를 얻을수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오시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모든 특례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매일경제신문 인체영양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뺀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뺀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사주.퇴마.빙의.작명(신생아 이름)
수강생 모집
◆사주풀이 구궁팔괘법 ◆심령을 통하는 기도
◆하루일진 래정법 ◆육훈법
◆제갈공명 천비술서 ◆귀신뽑은 신통술
전생요법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조상귀신이 붙었는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술
*스님들도 꼭 알아야 인기가 있고 신도가 많다 ■모집인원 : 10명
■교육비용 : 200만원
◆부부인연 원진살 살풀이법 ◆신년운세, 직장취직운
◆조상원귀법 영가천도 ◆귀문관살 푸는 법
◆병을 일으키는 악령귀신 푸는 법 ◆백호대살 푸는 법
◆육효점, 육임점, 하루일진 래정법
작명(신생아 이름) 음양오행 이름을 지어주면
만사형통, 건강, 재물, 학업성취
경기 성남시 성남동 2318번지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주차장은 공설운동장)
모음정사(달마 스님)
031)755-3775, 011-857-3775